반나절 생활권 … 문화전당·남도 먹거리 등 관광 연계 방안 찾아야

광주·전남 미래 바꿀 3대 役事 완공의 해 〈2〉

호남고속철 ① 광주~서울 90분 '위기냐 기회냐'

올 연말이면 KTX로 광주에서 서울을 왕복 3시간 만에 오가는 시대가 열린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KTX시대를 "광주·전남에 모처럼 찾아온 기회이자,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광주·전남이 지금처럼 '반나절 생활권 시대'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감기환자'가 KTX를 타고 서울 유명병원에 들러 치료를 받은 뒤 쇼핑 겸 점심을 먹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심각한 수도권 역류현상이 만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타 지역이나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체로 고속철도 개통 이후 교육과 의료·유통(쇼핑) 분야에서 수도권으로 역외유출되는 이른바 '빨대효과'를 비롯한 대기업의 지방 지사 축소 등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관광과 학술·문화 행사, 역세권 발전 등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도시간 무한 경쟁 체제 돌입=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오는 2020년 이후 고속철도의 수혜 범위는 1시간30분대가 전체 인구의 84%, 국토의 82%, 2시간대는 인구의 98%, 국토의 95%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 주요 도시를 모두 KTX로 연결해 90분 내 대도시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국 반나절 생활권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에 앞서 광주는 올해 말이면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게 된다. 광주는 시간적인 접근성 면에서 서울의 위성도시들과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시공간이 일체화되고 축소되면서 1일 교류 범위가 가능해지고, 광주에서 서울로 출퇴근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생활 영역이 확대되면서 도시간 교류와 활동량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도시간 무한경쟁 체제에서는 자치단체들의 대응 정책에 따라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공통된 조언을 내놓고 있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대도시간 무한경쟁에 따른 변화 시나리오는 크게 현상 유지형과 역류형, 다핵 연계형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유형은 자치단체와 관련 주체(의료, 쇼핑, 여행업체 등)의 협력과 정책적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

'현상 유지형'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지역 내 국책사업간 연계가 미흡하고 자치단체의 고속철도 활용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것으로, 말 그대로 고속철도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다.

'역류형'은 지방도시 주민들이 고급 서비스 소비를 위해 수도권 및 거점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으로, 고속철 개통에 따른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나타나는 형태다.

'다핵 연계형'은 도시간 접근성 개선으로 정차도시 및 주변지역의 발전

수도권 위성도시와 차이없고
대도시간 무한경쟁 시대
다핵연계형 전환 노력을

학술·문화·역세권 발전
도시간 교류활동 증가 등
긍정효과 극대화 방안 시급

잠재력이 적극 활용되는 한편 비수도권 정차도시의 기능이 강화돼 수도권과의 기능분담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정차도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유형이다.

광주·전남은 현재까지 '빨대효과'를 우려해야하는 상황으로, 다핵 연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의료·유통 등 역류효과= 전문가들은 해외와 국내 사례 등을 들어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역류효과를 우려하는 측과 그 현상(역외유출)이 미미할 것이라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지난 2004년 KTX가 개통된 대구의 사례를 보면 개통 5년 후 대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수도권에서 의료와 교육, 쇼핑, 문화예술 행사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80%대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 역세권 인근 상인 62%는 KTX 때문에 오히려 연간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울산의 경우에는 지역 경제가 수도권으로 빨려드는 효과는 물론 지역간에도 빨대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지난 2010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KTX 개통 후 울산의 소비자들이 부산의 고급 쇼핑센터로 몰리는 현상을 보였다.

같은 해 서울과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부산시민의 서울 활동 변화는 개통 전 17.2%에서 개통 후 26.0%로 8.8%포인트 증가했지만 서울시민의 부산 활동은 1.2%에서 3.4%로 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부산시민의 서울 활동을 살펴보니 공연문화활동이 11.2%포인트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관광레저(9.9%포인트), 의료(9.2%포인트)순이었다. 서울시민은 KTX개통 후 부산에서 관광레저활동(6.9%포인트)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KTX개통에 따른 대도시간 역류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개통되는 고속철도의 경우엔 각 지역별로 유명 백화점의 체인점 등 대규모 쇼핑시설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다, 온라인 쇼핑의 확대 등 유통 구조의 변화, 반나절 생활권에 따른 문화 예술 공연팀의 지역 공연 접근성 향상, 지역 내 의료기술 선진화 등이 이뤄진 만큼 역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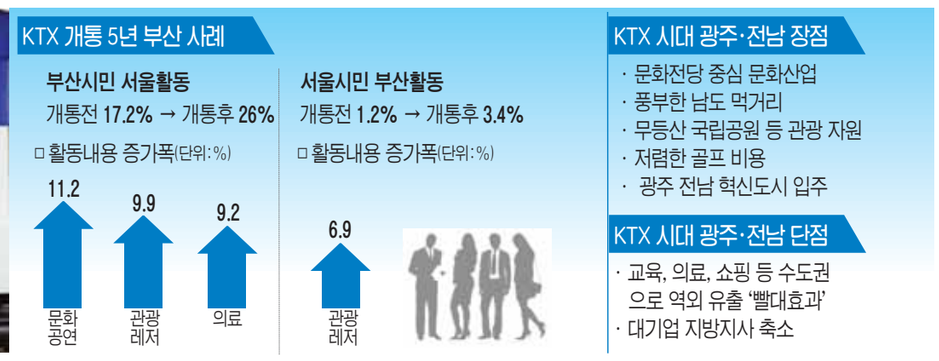
◇일본·프랑스·독일 등 해외 사례= 1964년 도쿄~오사카간 고속열차인 신칸센을 첫 개통한 일본은 정차역이 있는 도시의 사업체 수와 매출액, 생산량, 인구, 역세권 성장의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항공수요의 감소, 무박 당일 여행 증가에 따른 숙박·여행산업 불황, 대도시 쇼핑객 유입 등 수도권 빨대효과에 따른 지역 쇼핑산업 붕괴 등의 부정적 현상이 발생했다.

1981년 파리~리용간 떼제베를 개통한 프랑스는 비행기와 경쟁하는 고속철을 내세워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인근 국가까지 개통함으로써 사실상 국경을 무너뜨리고, 프랑스를 국제 중심지로 부상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독일은 고속철도인 ICEs 개통 후 교통 수단별 시장 점유율이 크게 변화했다. 점유율이 미미했던 고속철도 등 기차의 점유율이 1.86%에서 28.2%로 급증했으며, 항공기는 5.0%에서 3.5%로, 승용차는 76.4%에서 68.3%로 떨어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호남고속철 개통 (2014년 12월)



KTX 시대 광주·전남 장점
- 문화전당 중심 문화산업
- 풍부한 남도 먹거리
- 무등산 국립공원 등 관광 자원
- 저렴한 골프 비용
- 광주 전남 혁신도시 입주

KTX 시대 광주·전남 단점
- 교육, 의료, 쇼핑 등 수도권으로 역외 유출 '빨대효과'
- 대기업 지방지사 축소

전북 정읍시 정우면 회룡터널 주변 KTX호남선 공사구간에 대나무처럼 곧게 뻗은 장대레일이 깔려있다. 150명의 인부들이 하루 300m씩 궤도작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이면 충북 오송역~광주 송정역(총 연장 184.5㎞)의 KTX호남선 1구간이 완전 개통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호남고속철 첫 투입 KTX 고속열차는

좌석 공간 '산천'보다 넓고 편성당 47석 늘어

올해 말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투입될 고속철도 차량은 좌석 공간이 현 KTX산천보다 넓고, 좌석 수도 크게 늘어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기존 고속철도 차량의 공간이 좁다는 지적에 따라 좌석의 무릎 공간을 5.7~7.5㎝ 넓히고(KTX대비 7.5㎝, KTX산천 대비 5.7㎝), 좌석 수도 410석(특실 33석, 일반실 377석)으로 편성당 47석 늘었다.

철도공단은 특히 고속차량에 항공기 객실 좌석 등받이 구조 방식을 적용하고, 기존 고속차량의 가족실, 부속실 등 사용이 적은 공간과 방송실, 승무원실 등 기능이 중복된 공간을 찾아내 실내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특히 편의시설로 객실 내 19인치 LCD TV 4대와 전 좌석 회전식 의자, 전원콘센트 설치, 수유실 1곳, 기저귀 교환대 2곳, 수화물칸 8개소를 갖추고 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설비로 1편성 당 5석의 장애인석과 장애인 화장실 1개소, 휠체어 고정장치 2곳, 휠체어 보관소 1곳도 구비하고 있다.

외형은 탄환이 날아가는 형상을 모티브로 고속의 이미지를 구현했으며, 외부는 와인색을 적용해 포도의 풍성하고 신선한 느낌을 살려냈다. 설계 최고속도는 시속 330㎞, 상업운전은 최고 300㎞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7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선릉점(선릉역 2번 출구):02)985-183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타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스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 호평역 앞):070)8829-9903 **부산** 서면점(서면로타리):051)818-8800 서면2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타리):052)2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타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이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 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7역 사거리):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타리):063)252-5728 군산점(구 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타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실원로타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6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타리):064)753-438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 광주점(금남로 47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점(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